



이 상 배 이사
(주)삼화육종

불황과 FTA 확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육계산업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몇 년을 두고 살얼음판을 걷는 모습을 하고 있다. 병술년 새해에는 모든 육계인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라는 말을 잊고 살았으면 했는데 잊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동남아에서 부터 다시 동·서유럽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접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또한 연초부터 한·미 FTA 협상 추진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뉴스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일각에서는 닭고기는 이번 협상에서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이미 타결된 한·칠레 FTA 협상 결과에서 보듯이 발효 직후부터 수입산물이 범람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미국의 육계산업은 칠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음을 감안하면 걱정은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는 UR협상 이후 수입개방에 대처해보자고 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육계인은 물론 정부도 정책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 20~30% 절감을 지상과제로 하여 제도를 고치고, 자금을 지원하는 등 분주히 노력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IMF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국가

적인 잇단 대형 사건들에 둘러싸여 생산비 절감은 유아무야 잊혀져왔다. 그 후 육계업 경기는 소비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가격 진폭이 매우 심화되는 구조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결국 소비보다는 생산량과 수입량에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매우 원초적인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의 가능성 제기로 닭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닭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보이자 다급해진 육계업계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 것이 오는구나!'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형성되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자율적으로 생산을 감축하여 그런 대로 닭값과 병아리 값은 회복될 수 있었다. 그나마 그 당시에는 노계군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병아리의 생산 감축이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사상 유래 없는 종계의 분양수수는 금년 3월부터는 과잉생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기전망을 여러 잡지에서 제시한 바 있다. 종계가 분양되어 6개월이 지나면 병아리가 생산된다. 3월부터는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부화장에서 병아리의 생산수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가다가 또 다시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생산성 저하와 질병 등으로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조그만 변화만 생겨도 육계업 경기는 바닥으로 추락할 여지가 많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생산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추하는 육계인들의 마음처럼 육계업 경기가 호황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어느 누구든 불황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한 호황 뒤엔 불황이 온다는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미 각종 생산수수와 관련된 통계들이 과잉생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어 경기의 흐름(사이클)상 불황으로 접어들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 육계산업 관련 모든 종사자들은 불황은 그저 올 때 와서 갈 때 그냥 가는 것으로 여기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한발 앞선 대처를 해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직후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을 당시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여준 성원을 생각해보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지원을 그저 육계인들의 어려움에 동정심을 표현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많은 국민들이 육계산업의 장래를 염려하고, 어려움 극복을 통해 더욱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의 발로였다는 평가가 오히려 더 적절할지도 모른다. FTA 협상 대비책이라면 우선 생산비를 최대한 낮추어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일 것이고, 과잉생산에 대해서는 소비증가라는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생산을 줄이려는 노력이 급선무일 것이다.

종계인들이 나서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늘 막연한 기대감으로 실시하는 강제환우(기간연장 목

적)를 최대한 자제해 나가는 일이다. 또한 경제수명이 지난 노계는 제때 도태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병아리 가격이 생산비를 유지한다고 무조건 종란을 생산하여 농가에 병아리를 공급한다면 머지않아 과잉생산의 빌미가 되고, 그 불황은 자신들에게 돌아간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 같은 현상은 너무나도 흔하게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고, 늘 그 손해는 고스란히 생산자들의 몫으로 되돌아왔을 뿐이다. 육계인들은 어려웠지만 1985년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마련하여 소비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왔다. 규모가 커지게 되어 1992년에는 정부로부터 자조금사업을 승인받아 조성자금과 정부보조금을 합해 TV, 여성지, 지하철, 학생교육 등 다양하게 소비홍보를 전개해 육계산업을 유지해왔다. 지난해에는 의무자조금사업 체제를 구축하여 대대적으로 닭고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육계산업을 견고히 해나가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육계산업 종사자들의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에서 최근 의욕과 기대를 걸고 추진하고 있는 부화장 Data Base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병아리의 생산을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감축노력에 새로운 지표가 되도록 틀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제아무리 좋은 방법을 동원하여 과잉생산을 막으려해도 현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의 협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우리 계육인들은 먹잇감을 찾아 날고 있는 매 2마리를 피해 달아나는 토끼와도 같은 입장에 놓였다. 들판을 내달리는 토끼를 매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달려드는 처지와 같다. 향후 FTA는 미국 외에도 중국, 태국, 멕시코, 브라질 등 닭고기 세계 최대 수출국과 협상이 더 확대될 추세라는 것이 외교통상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무역량이 증가할수록 자유무역협정이 더욱 확대된다면 관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낮아져 수출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육계산업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년 전에 비해 육계산업은 사육방법, 사육규모, 농장시설, 유통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수출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입여건만 새로이 조성되면 가격이 싼 닭고기가 시장 깊숙이 파고들 여지가 높다. 생산기반 안정과 생산비를 낮추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FTA협상 확대 및 국내 과잉생산의 두 가지 난관을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